

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## 이슈브리프

금융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(Gamification)

## 국제금융시장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금융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(Gamification) ..... 1

국제금융시장 ..... 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 7



# 금융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(Gamification)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재준 (june97@kdb.co.kr)

- ◆ 생활 전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금융에 있어서 이용자의 금융 앱 방문을 늘리는 한편, 고객 확보 및 유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
- ◆ 향후 금융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은 장기고객 확보를 위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

## □ 최근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'게이미피케이션(Gamification)\*이 고객마케팅뿐만 아니라 교육, 금융 등 생활 전 범위로 확장되고 있음

\* '게임'(Game)과 '~식으로 만들다'(~fication)의 합성어로,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과 사고방식 등을 접목해 행동과 관심 등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('11년 The Gamification Summit에서 Gabe Zichemann가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)

○ 주로 마케팅전략\*으로 활용되던 게이미피케이션이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늘어나면서 집중력과 흥미를 끌어내기 위한 콘텐츠로 등장

\* 마케팅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스타벅스의 '리워드'는 이용 횟수에 따라 '별'을 적립해주고, 쌓이는 별의 개수에 따라 레벨이 상승하며 혜택이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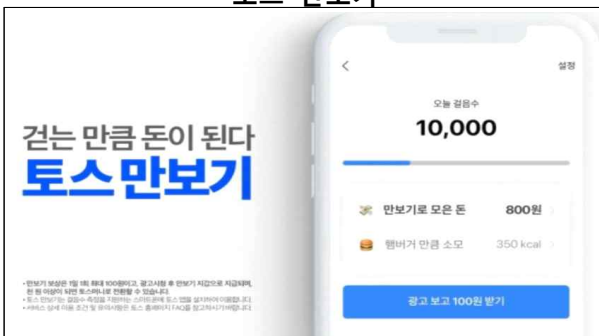
- 엔씨소프트 출신 게임 제작자들이 설립한 '에누마'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'토도영어' 출시, '에이러스'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 출간 등

○ 수익률과 더불어 재미 등을 선호하는 MZ세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회사들은 게임 요소들을 접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강화

- 토스 만보기는 오천보 10원, 만보 30원, 편의점 등 주변에 가까운 미션 장소를 선택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면 20원씩(최대 100원) 토스 머니 지급

- 카카오뱅크 '26주 적금'은 매주 최초 가입금액만큼 적금을 납입하면 캐릭터가 '목표 달성 켈린더'의 빈칸을 채워주고, 목표 달성시 연 0.50% 우대금리 제공

토스 만보기



자료 : 토스

카카오뱅크 26주 적금



자료 : 카카오뱅크

□ 금융서비스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소비자들의 금융 앱 사용을 늘리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확보·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

○ 금융서비스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도전, 성취, 그에 따른 보상 등 게임 요소를 가미하여 이용자의 금융 앱 방문을 늘리고 금융거래를 발생시키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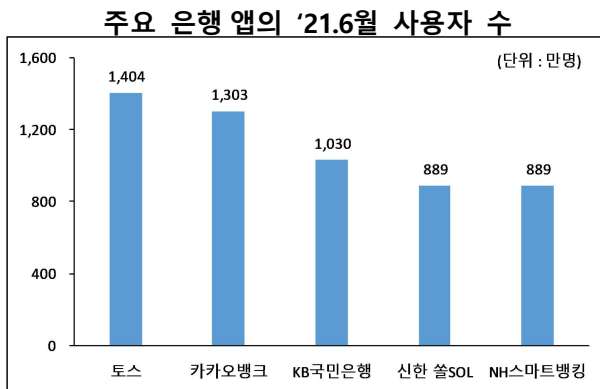
- 토스 만보기는 걸음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토스로 연결(만보기의 송금 버튼 터치)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음

\* 토스의 '21.6월 사용자 수는 약 1,404만명으로 은행 앱 가운데 최대 트래픽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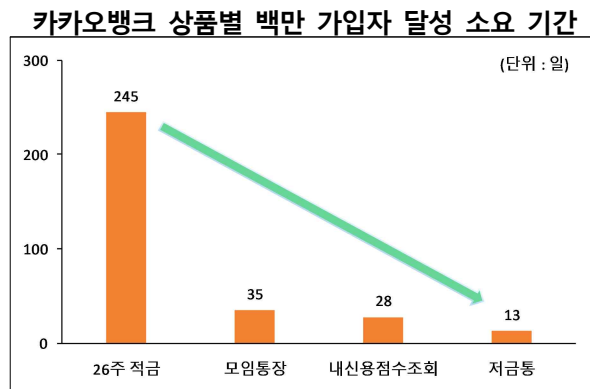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의도된 게임 요소를 통해 고객들이 모바일뱅킹 사용과정에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고객 충성도 강화에 효과적임

- 새롭게 출시된 카카오뱅크 상품의 가입자가 100만명에 도달하는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\*되고 있음

\* '26주 적금'(18.6월 출시)이 245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여 '저금통'(19.12월 출시)은 단 13일 소요('저금통'은 연결계좌에 천원 미만의 잔돈이 있는 경우 최대한도 10만원까지 자동 저축되는 상품)



자료 : 모바일인덱스



자료 : 카카오뱅크

□ 모바일 플랫폼이 금융권의 새로운 격전지가 된 상황에서 고객 유입 및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융서비스의 게이미피케이션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

○ 플랫폼 헤게모니 소유 시 수익은 자연스럽게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은 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수익보다 최우선 과제로 인식

\* 카카오뱅크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 규모보다는 고객의 트래픽과 트랜잭션을 성과의 지표로 볼 것이며, 이익은 이를 통해 따라오는 결과물이라고 밝힌 바 있음('21.2월)

○ 단순히 상품 자체의 퀄리티를 넘어 흥미와 몰입경험을 통해 고객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고객 확보를 위한 금융권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 속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

# 국제금융시장 10월 동향 및 11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 천 경 원 (cheonkw@kdb.co.kr)  
 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10월 초 연내 테이퍼링 실시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중순 이후 급등세가 진정, 11월에는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 유의
- ◆ **(금리)** 10월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, 11월에는 연말 시즌을 앞둔 공급 차질 이슈의 완화 정도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심리를 좌우할 전망
- ◆ **(주가)** 10월 미국, 유럽 증시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전월말 수준으로 보합, 11월에는 연말 소비심리 강화 등의 기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질 전망

□ **(환율)** 10월 초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, 원/달러 환율은 급등, 중순 이후 급등에 대한 조정으로 하락 후 관망세, 11월 테이퍼링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

○ (달러화) 달러 인덱스\*는 매파적인 9월말 FOMC의 영향으로 10월 초까지 강세 흐름 지속 이후 중순부터는 하락 반전, 시장은 11월 FOMC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테이퍼링 계획에 대해 주목 중으로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 유의

\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
- (동향) 9월 FOMC 이후 시장은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\*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예상을 반영하여 미 국내금리가 9월말 이후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달러화 강세에 영향

\* 9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"다음 FOMC에서 테이퍼링 여부가 결정되어 '22년 중반에 종료될 수 있음"을 시사, 10월 국제결제은행의 컨퍼런스에서는 테이퍼링의 준비가 "순조롭게 진행 중"이라고 언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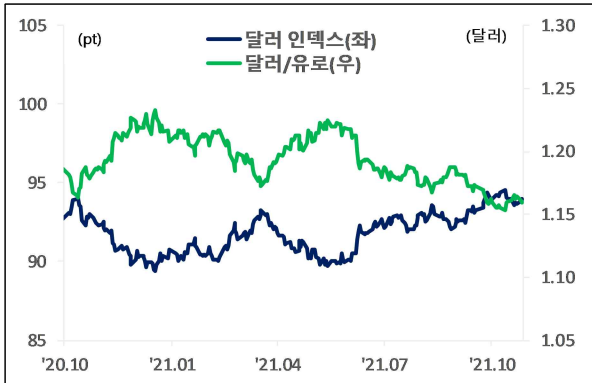
- (전망) 10월 중반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하락 반전하여 상승세는 진정되었으나 11월 FOMC에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대한 시각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

○ (유로화) 10월 중 달러/유로 환율은 미 국내 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 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11월에도 약세 흐름 예상

- (동향) 9월 연준 파월의장의 테이퍼링 일정에 관한 언급 이후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0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10월 중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으로 소폭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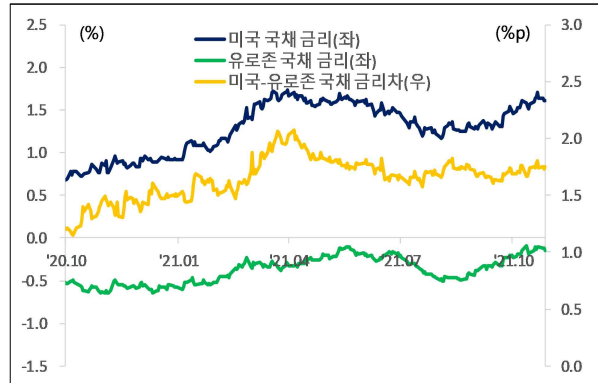
- (전망) 10월 ECB통화정책 회의에서는 PEPP(펜데믹긴급매입 프로그램)를 통한 채권 매입 속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기조\*를 유지하고 있어 약세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
- \* 미국의 테이퍼링 실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, 러시아 등 신흥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영국, 캐나다의 중앙은행도 금리인상을 시사

달러 인덱스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미국-유로존 국채 금리(10년) 추이



자료 : Bloomberg

- (원화) 원/달러 환율은 테이퍼링 예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10월초 연고점을 경신하였으나 중반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1월에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주목할 필요
- (동향) 9월말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10.12일 연고점(1198.8원)을 경신하였으나 정책 당국의 안정화 노력\*, 달러화 강세의 진정 등으로 하락 반전된 후 월말 삼성중공업, 한국조선해양의 대규모 선박 수주 소식에 추가 하락
- \*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"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경제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"며 "필요하다면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실행할 계획"이라고 언급
- (전망)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, 시장내 선반영된 테이퍼링 이슈 등이 환율 상승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나 11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\*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주목할 필요
- \* 연준의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에 관한 공세적 언급은 원/달러 환율의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환율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9월말	'21.10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479	89.927	93.423	93.864	+0.47%
달러/유로	1.1219	1.2217	1.1694	1.1603	△0.78%
엔/달러	108.66	103.26	111.0	113.8	+2.55%
원/달러	1,156.4	1,086.3	1,184.0	1,168.6	△1.30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10월말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, 11월에는 공급 병목의 극복 정도와 이에 따른 연말 경기의 온전한 재현 여부에 시장심리가 연동될 전망

○ (동향) 10월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테이퍼링, 금리인상 등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일정 조기화 등에 대한 경계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

-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유가 급등, 공급 병목 지속 등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과 연준의 매과 성향 강화 기미 등으로 1.7%(21일)까지 상승하다, 이후 연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\*과 11월초 FOMC를 앞둔 관망세에 따라 반락하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수준으로 마감

\* 23일 미 연준 파월의장은 인플레이션 강세와 공급망 교란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, 다만, 실제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임을 강조

- 독일과 일본 국채금리도 미 국채시장에 동조하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 
· ECB는 10.28일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존의 통화완화적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과도한 긴축 우려를 덜어 시장금리 안정화에 도움

○ (전망) 11월 들어서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윤곽이 분명해지는 가운데, 공급 측면의 단가인상 부담 지속이나 분기 경제성장률 둔화 여부 등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

- 미국금리는 11.2~3일 FOMC로 구체화될 테이퍼링 일정보다는 추후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과 경기 모멘텀에 영향을 줄 공급 병목 및 물가 추이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

-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현행 통화완화 방침에 변함이 없어 긴축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, 각국 금리는 미 정책과 국채시장 추세에 지속 연동될 가능성

주요국 국채금리 추이

	'19년말	'20년말	'21.9월말	'21.10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1.9175	0.9132	1.4873	1.5521	+6.48bp
독일채 10y	-0.1850	-0.5690	-0.1990	-0.1060	+9.30bp
일본채 10y	-0.0110	0.0210	0.0720	0.0990	+2.70bp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10월 미국, 유럽 증시는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일본은 전월말 수준으로 포함, 11월에는 연말을 앞둔 소비심리 강화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도 비교적 안정적인 전망

- (동향) 10월 미국, 유럽은 대체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며, 일본은 보합세
  -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혼조\*, 성장률 둔화 우려 등에도 빅테크 기업들을 위시한 3분기 기업실적의 호조로 주요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\*\*하는 등 전월대비 상승
    - \* 9월 비농업고용지수는 19.4만명을 기록하며 전월치와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반면, 실업률은 예상(5.1%)보다 낮은 4.8%를 기록했으며,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29만건을 기록
    - \*\* 월중 최고치(증가기준) : 다우존스 35,819.56 (29일), 나스닥 15,498.39 (29일), S&P500 4,605.38 (29일)
  - 유로Stoxx50 지수도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양호한 기업실적이 증시 호조를 뒷받침
  - Nikkei225 지수는 월초반 미 국채금리 상승, 일본 신임총리의 금융소득세율 인상 추진 방침 등으로 하락하다, 미 증시와의 동조로 하락폭을 만회하며 전월말 수준 마감
- (전망) 11월 주요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, 연말 특수 기대감과 '위드코로나' 소비심리 확장 등의 호재가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전망
  - 원자재가 급등, 일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생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서도 소비대기 수요가 기업실적을 부양하고 있어, 일각의 주가 고평가 논란에도 추세 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
  - 다만, 미 증시의 경우 '시장 탐욕구간'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될 만큼 조정없는 강세를 이어온 만큼 이를 위태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에는 유념할 필요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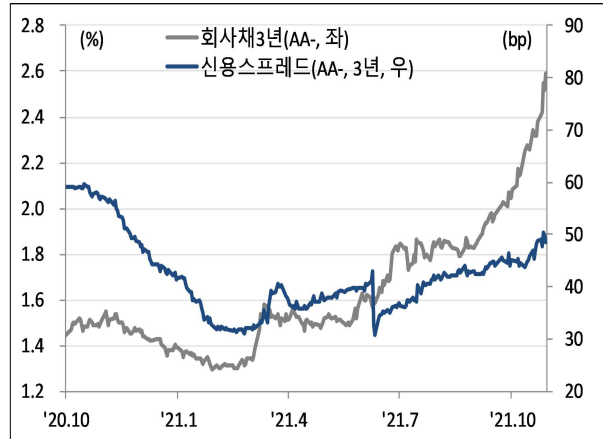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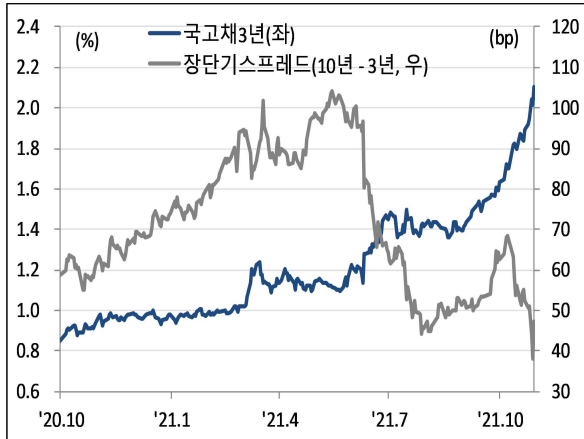
	'19년말	'20년말	'21.9월말	'21.10월말	전월대비
다우존스	28,538.44	30,606.48	33,843.92	35,730.48	+5.57%
유로 Stoxx 50	3,745.15	3,552.64	4,048.08	4,233.87	+4.59%
Nikkei 225	23,656.62	27,444.17	29,452.66	28,820.09	△2.15%

자료 : Bloomberg

(담당자 : 환율 - 천경원, 금리·주가 - 장명화)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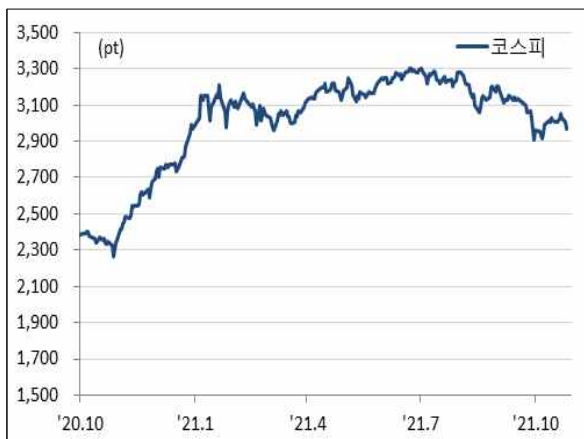
**금리** 국고채3년 2.103% (21.4bp ↑), 신용스프레드 48.5bp (0.3bp ↓)



**환율** 원/달러 1,168.6원 (8.5원 ↓), 엔/달러 114.02엔 (0.5엔 ↑)



**주가** 코스피 2,970.68pt (1.18% ↓), 코스닥지수 992.33pt (0.28% ↓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# 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950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[rd.kdb.co.kr](http://rd.kdb.co.kr), [kdb.co.kr](http://kdb.co.kr)
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이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